

60대 남녀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 연구

이 영 주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ale and Female Elders in their 60s on their body shape

Young Ju Lee

Dept.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ung University
(2003. 4. 3. 접수)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comparisons between 286 male and female in their 60s in terms of the perception of their body shap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perception of male and female elders in their sixties on their body shape, a larger number of female elders considered that they were fat, short and heavy than male elder did. With regard to satisfaction with the body, male elders appeared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ir bodies than female elders, and both male and female elders were dissatisfied most with their abdomen girth.
2. The satisfaction of male and female elders in their sixties with their body shape appeared to be influenced more by their perception than their measured sizes. They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body shape when they perceived that they had small girths, they were tall and they had long legs. In addition, female elder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body shape when they perceived that their thigh girth and ankle girth were large.
3. As for perception on normal body types and fat body types and satisfaction, male elders' satisfaction with their body shape appeared to be less influenced by their body types than female elders'.

Key words: male and female elders, perception of body shape, satisfaction of body shape, measured size, ideal size; 남녀노인, 신체인식도, 신체만족도, 계측치수, 이상치수

I. 서 론

보건사회부(1992)는 우리 나라의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90년 전체 인구 대비 7.4%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13%, 2020년에는 18.5%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실버산업의 발달과 노년층의 구매력증가를 가져오면서 노년층이 새로운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되고 있다.

본 논문은 2003년도 경성대학교 특별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노년기의 구분에 대하여 세계 노인회는 60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으로 규정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60세가 회갑이므로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을 노년으로 보고 있다. (김희영, 1998) 조진숙 박상희, 최정우(199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년 여성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지각하지 않으며 노년 시작 기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점인 60대보다 늦은 65세부터라고 여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 전기에 해당하는 60대는 과거 자식들에게 의지하여 경제권이 없어 소비력이 약했던 것과는 달리 정년퇴직이나 연금제도 등에 의해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권을 가지는 연령대로 노년 중기나 후기의 노년층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60대는 노년중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70대, 80대와는 체형이나 의식구조, 경제권 등에서 다른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인순, 성화경(2002)의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 여성의 측면의 형태는 60대는 바른 체형의 출현률이 높으며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숙인 체형의 출현이 높으므로 노년기의 기능적인 의복은 60세 보다는 70세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박재경, 이정임, 남윤자, 주소영(2002)의 연구에서도 60대 여성들은 신체에 대한 관심이 다른 노년기에 비해 높아 60대 여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Hoffman(1970)에 따르면 노인에 있어서 의복은 궁정적인 자기 이미지 유지와 새로운 사회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유용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Horn과 Gurel(1981)은 노인들은 편안한 형태의 옷 뿐 아니라 여행과 전체적인 형태를 고려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진숙, 박상희, 최정육(1997)의 연구에서도 노인여성들이 외출복을 구매할 때 외관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체적 변화와 사회,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60대를 위한 미적인 의복제작을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60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년중기, 노년후기와는 분리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유희숙, 1996; 김희숙, 2002; 김인순, 성화경, 2002; 남윤자, 박재경, 이정임, 남윤자, 주소영, 2002; 정혜원, 김구자, 2002)에서는 60대가 70대, 80대와 같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노년 남자에 대한 연구(이순명, 1993, 1994, 1996; 김희영, 1998; 서미아, 이선희, 2002)나 남녀노인을 비교한 연구는 미국의 남녀 노인을 연구한 황진숙(2000)의 논문 외에는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 중에서도 노년전기인 60대를 분리하여 60대 남녀 노인계층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비교 연구해 볼으로써 중요한 소비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60대 남녀 노인을 위한 의복디자인과 의복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60대 남녀노인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비교연구 한다.

둘째, 60대 남녀노인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의 비교를 통해 남녀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연구한다.

세째, 60대 남녀노인의 체형별 인식도와 만족도, 체형별 계측치수와 이상치수를 비교연구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60대 남자 120명, 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직접계측을 동시에 실시하여 설문에 대한 응답과 계측치수가 빠진 것을 제외한 남자 107명, 여자 79명의 데이터를 통계처리 하였다. 설문과 계측은 2002년 8월에 노인대학과 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연령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60대 남녀 노인의 연령분포

연령	N		%	
	남	여	남	여
60~64	53	41	49.5	51.9
65~69	54	38	50.5	48.1
계	107	79	100	100

2. 측정도구

설문지와 계측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1) 인식도와 만족도

인식도와 만족도는 선행연구(남윤자, 유희숙, 1996; 김희숙, 2002)와 예비조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위로 나타난 목굵기, 어깨너비,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키, 몸무게, 비만정도와 노인의 체형 특징으로 생각되는 등굵은 정도, 허리굽은 정도의 13항목이 선택되었다.

인식도와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인식도는 점수가 높을 수록 굵고, 길고, 크고, 무겁고, 비만하고, 많이 굽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만족도는 점수가 높을 수록 신체부위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2) 계측치수

Martin계측기를 사용하여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키, 몸무게의 9항목을 직접계측 하였다.

3) 이상치수

피험자들이 각 부위의 치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므로 계측치수를 알려준 뒤 각 부위별로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이상적인 치수를 적도록 하였다.

4) 체형

본 연구에서는 19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남녀노인의 신체총실지수에 의해 신체총실지수 120이하를 허약, 120~150을 정상, 150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피험자의 경우 신체총실지수 120이하가 남자가 4명, 여자는 1명밖에 없고 그 지수치가 120에 가까워서 120이하의 피험자를 정상체형에 포함시켜 정상과 비만 체형으로만 분류하였다.

5) 자료분석

SPSS/win 10.0을 사용하여 남녀 노인의 비교 분석은 T-Test 통계처리 하였으며, 인식도와 만족도, 인식도와 계측치수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로 통계처리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60대 남녀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60대 남녀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60대 남녀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는 남자는 허리둘레를, 여자는 배둘레를 가장 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남녀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해 보면 배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키, 몸무게, 허리굽은 정도, 비만정도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배둘레는 여자가 굵게 인식하고 있으며, 발목둘레는 남자가 더 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에 비해 여자는 키는 작다고, 몸무게는 많이 나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굽은 정도는 60대 남녀노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허리굽은 정도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60대 여자

<Table 2> 60대 남녀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부위	인식도				T값	만족도				T값		
	남		여			남		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목굵기	3.08	0.48	3.08	0.59	0.10	3.33	0.60	2.96	1.08	2.95**		
어깨너비	2.97	0.50	2.85	0.62	1.50	3.31	0.69	3.09	0.80	2.00*		
허리둘레	3.38	0.61	3.59	0.76	-0.59	3.06	0.87	2.54	0.98	3.77**		
배둘레	3.37	0.61	3.59	0.76	-2.21*	2.98	0.91	2.39	1.01	4.17***		
엉덩이둘레	3.25	0.53	3.32	0.78	-0.67	3.11	0.86	2.76	0.92	2.68**		
대퇴둘레	3.04	0.36	2.99	0.82	0.56	3.36	0.59	2.95	0.89	3.76***		
발목둘레	3.01	0.22	2.80	0.70	2.93**	3.40	0.53	3.13	0.92	2.50*		
다리길이	2.80	0.61	2.43	0.86	3.60**	3.20	0.75	2.67	0.97	4.17***		
키	2.79	0.53	2.42	0.83	3.60***	3.14	0.83	2.59	1.06	3.93***		
몸무게	3.04	0.57	3.42	0.83	-3.73***	3.24	0.72	2.63	1.19	4.33***		
등굽은정도	1.27	0.49	1.29	0.51	-0.27	3.53	0.66	3.44	0.98	0.74		
허리굽은정도	1.08	0.65	1.39	0.65	-4.55***	3.50	0.65	3.62	0.90	-1.02		
비만정도	3.07	0.54	3.46	0.76	-4.09***	3.36	0.77	3.38	1.66	-0.03		

*p<.05, **p<.01, ***p<.001

들은 남자에 비해 허리가 조금 더 굽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대 남녀 노인은 노인의 체형적 특징인 등과 허리가 굽는 체형적 변화는 거의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의 비만정도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자신의 몸이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등과 허리의 굽은 정도, 몸의 비만 정도를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남자의 경우 배둘레가 가장 불만인 부위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부위는 3.0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60대 여자의 경우도 배둘레가 가장 불만이었으며 다음으로 키, 몸무게, 다리길이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여자의 경우 비만인자에 속하는 각 부위의 둘레항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데 비해 몸의 비만정도에 대해서는 둘레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60대 남녀 모두 다른 부위에 비해 등굽은 정도와 허리굽은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남자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는 이영주(2002)의 남자 대학생의 인식도, 만족도와 비교해 보면 대퇴둘레를 제외하고는 60대 남자들이 20대 남자들에 비해서 둘레를 굽게 인식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60대 여자의 경우 정재은(1993), 이영주 외 3인(1997)의 20대 여자의 인식도, 만족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60대 여자들은 20대 여자들에 비해 자신들의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발목둘레는 가늘게 인식하고 있으나 몸무게는 더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리길이와 키는 20대에 비해 더 짧고 작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들이 제일 굽게 인식하고 있는 대퇴둘레의 경우 60대 여성은 발목둘레 다음으로 가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노년기로 갈수록 대퇴가 가늘어지는 신체적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만족도에서는 20대 여성들은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의 만족도가 1.99, 1.94, 1.72로 아주 낮게 나타났으나 60대는 20대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체에 대한 인식도가 20대 남녀와 60대 남녀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20대의 경우 유명연예인이나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상과의 비교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가 결정되나 60대들은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 신체의 인식도와 만족도가 결정되기보다는 자신의 나이와 건강, 현재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60세에서 80세까지의 노년여성의 신체만족도에 대한 연구인 박재경, 이정임, 남윤자, 주소영(2002)의 결과와 60대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설문항목이나 용어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 대상의 노인들이 목굵기, 허리, 엉덩이, 대퇴, 발목부위와 몸무게에 대해 더 굽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노인 중에서도 60대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층의 노인들 보다 높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60대 남녀 노인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

부위	남자				T값	여자				T값		
	계측치수		이상치수			계측치수		이상치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슴둘레	92.86	5.21	92.84	5.20	0.16	92.87	6.04	91.10	3.80	3.35**		
허리둘레	88.22	6.90	86.25	5.94	5.96***	84.57	6.44	79.93	5.43	7.45***		
배둘레	90.19	7.07	87.86	5.91	6.84***	94.43	7.00	89.92	6.09	7.71***		
엉덩이둘레	93.36	5.60	91.78	5.14	4.95***	95.32	4.58	93.39	3.71	4.10***		
대퇴둘레	48.10	5.45	48.19	4.00	-1.84	51.78	4.08	52.32	8.19	-0.65		
발목둘레	24.65	3.36	24.38	1.53	0.93	23.08	2.10	23.22	1.99	-0.65		
다리길이	96.15	4.39	97.01	4.42	-3.57**	93.83	4.27	96.21	3.70	-9.34***		
키	165.33	5.39	166.33	5.02	-3.76***	155.50	4.68	159.53	3.42	-9.24***		
몸무게	65.00	7.45	65.01	6.79	-0.50	58.24	6.00	55.77	3.86	5.88***		

*p<.05, **p<.01, ***p<.001

그러므로 노인 중에서도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60대 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의 형태로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이나 패턴설계를 통해 60대 소비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60대 남녀노인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의 비교

60대 남녀노인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를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자의 경우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에서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허리둘레는 1.97cm, 배둘레는 2.33cm, 엉덩이둘레는 1.58cm가 작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길이는 0.86cm, 키는 1cm가 길고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는 계측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자신의 실제 몸무게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영주(2002)의 남자대학생의 결과를 보면 키는 계측치수가 172.38cm, 이상치수가 179.02cm로 6.64cm가 더 크기를 원했으며, 몸무게는 3.91kg이 더 나가기를 원했다.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서는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60대 남자는 20대 남자들에 비해 키와 몸무게에 대한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의 차이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다리길이, 키, 몸무게에서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슴둘레의 경우 1.77cm, 허리둘레는 4.64cm, 배둘레는 4.51cm, 엉덩이둘레는 1.93cm가 작아지기를 원했으며 다리길이는 2.38cm 더 길고 키는 4.03cm가 더 크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몸무게는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차이가 없었던 남자와는 달리 2.47kg이 작게 나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60대 여자는 60대 남자에 비해 실제의 자신의 치수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신체 부위가 많았으며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치수 차이도 많아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남자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0대 여자의 경우 다른 부위에 비해 키와 다리길이에서 계측치와 이상치수간에 차이가 많이 나므로 다리길이가 짧고 키가 작은 사람의 체형적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리길이를 길게 보이고 키가 커 보이는 디자인과 패턴설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재은·남윤자(1999)의 20대 여성들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의 차이는 허리둘레 2.24cm, 엉덩이둘레 3.78cm, 키 6.53cm, 몸무게 2.73kg로 허리둘레는 60대 여성들이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의 차이가 더 많았으며, 엉덩이둘레와 키는 20대 여성들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의 차이가 더 많았다.

3.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 만족도와 계측치간의 상관관계

60대 남녀 노인의 신체 만족도에 실제계측치와 신체에 대한 인식도 중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만족도와 계측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만족도와 인식도의 관계를 보면 남자의 경우 몸무게를 제외한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키에서 만족도와 인식도간에 유

<Table 4>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 만족도와 계측치간의 상관관계

부위	만족도와 인식도의 상관		만족도와 계측치의 상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허리둘레	-0.53**	-0.53**	-0.15	-0.21
배둘레	-0.50**	-0.54**	-0.04	-0.08
엉덩이둘레	-0.45**	-0.43**	-0.18	-0.23*
대퇴둘레	-0.25*	0.30**	-0.10	0.05
발목둘레	0.22*	0.35**	0.10	-0.24*
다리길이	0.41**	0.52**	0.24*	0.49**
키	0.52**	0.60**	0.41**	0.66**
몸무게	0.14	-0.32**	0.28**	-0.25*

*p<.05, **p<.01

<Table 5> 체형별 만족도

부위	전체		T값	남자		T값	여자		T값
	정상 n=87 47%	비만 n=99 53%		정상 n=58 54%	비만 n=49 46%		보통 n=29 37%	비만 n=50 69%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목 굵기	3.32	3.07	1.97	3.43	3.22	1.72	3.11	2.92	0.74
어깨너비	3.29	3.15	1.25	3.39	3.22	1.19	3.11	2.92	0.14
허리둘레	3.26	2.49	5.88***	3.28	2.80	2.92**	3.21	2.20	5.06***
배둘레	3.12	2.42	5.02***	3.22	2.73	2.80**	2.93	2.12	3.70
엉덩이둘레	3.15	2.82	2.48*	3.41	2.78	3.92***	2.64	2.86	-1.02
대퇴둘레	3.27	3.13	1.25	3.47	3.24	1.96	2.89	3.02	-0.62
발목둘레	3.38	3.22	1.43	3.48	3.31	1.62	3.18	3.14	0.18
다리길이	3.30	2.70	4.72***	3.32	3.06	1.74	3.25	2.34	4.40***
키	3.23	2.63	4.34***	3.25	3.02	1.35	3.21	2.24	4.31***
몸무게	3.28	2.78	3.52**	3.31	3.22	0.65	3.21	2.34	3.33**
등굽은정도	3.65	3.34	2.53*	3.59	3.48	1.09	3.75	3.24	2.28*
허리굽은정도	3.59	3.51	0.70	3.54	3.45	0.68	3.68	3.56	0.56
비만정도	4.20	2.84	2.59**	3.57	3.14	2.90**	4.89	2.54	2.18*

*p<.05, **p<.01, ***p<.001

<Table 6> 체형별 인식도

부위	전체		T값	남자		T값	여자		T값
	정상 n=87 47%	비만 n=99 53%		정상 n=58 54%	비만 n=49 46%		정상 n=29 37%	비만 n=50 69%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목 굵기	2.94	3.22	-3.83***	2.96	3.22	-2.81**	2.89	3.22	-2.62*
어깨너비	2.80	3.01	-2.46*	2.87	3.08	-2.12*	2.68	2.94	-1.80
허리둘레	3.12	3.69	-6.32***	3.20	3.61	-3.55**	2.96	3.76	-5.55***
배둘레	3.21	3.75	-6.14***	3.22	3.61	-3.57**	3.18	3.88	-4.78***
엉덩이둘레	3.11	3.45	-3.79***	3.13	3.41	-2.69**	3.07	3.50	-2.26*
대퇴둘레	2.95	3.09	-1.59	2.96	3.12	-2.24*	2.93	3.06	-0.70
발목둘레	2.93	2.93	-0.34	2.98	3.04	-1.37	2.82	2.82	0.01
다리길이	2.90	2.53	3.10**	2.91	2.83	0.74	2.89	2.34	2.86**
키	2.80	2.43	3.10**	2.81	2.73	0.75	2.79	2.24	2.85**
몸무게	2.89	3.52	3.52**	2.91	3.24	-3.27**	2.86	3.78	-6.03***
등굽은정도	1.27	1.30	-0.46*	1.30	1.27	0.32	1.21	1.34	-1.04
허리굽은정도	1.14	1.28	-1.98*	1.09	1.06	0.62	1.21	1.50	-1.89
비만정도	2.93	3.55	-7.40***	2.93	3.29	-3.76***	2.93	3.80	-6.33***

*p<.05, **p<.01, ***p<.001

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대퇴둘레를 굵게 인식할 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발목

둘레는 굽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다리길이와 키는 길고 크게 인식할 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

<Table 7> 60대 남자의 체형별 계측치와 이상치 (단위 cm, kg)

부위	정상형 (n=58)				T 값	비만형 (n=49)				T값		
	계측치수		이상치수			계측치수		이상치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슴둘레	90.73	4.47	90.94	4.81	-0.89	95.38	4.82	95.08	4.77	1.69		
허리둘레	85.88	5.93	84.80	4.99	2.56*	90.99	6.99	87.96	6.56	6.24***		
배둘레	87.78	5.91	86.35	4.99	3.38**	93.04	7.32	89.65	6.44	6.59***		
엉덩이둘레	91.78	5.19	91.12	4.73	2.25*	95.24	5.52	92.56	5.54	4.69***		
대퇴둘레	47.08	6.78	47.53	4.58	-0.54	49.32	3.24	48.97	3.03	1.73		
발목둘레	24.61	4.37	24.16	1.53	0.83	24.70	1.52	24.64	1.50	2.20*		
다리길이	96.83	3.57	97.38	4.01	-2.40*	95.36	5.13	96.57	4.88	-2.73**		
키	166.48	4.83	167.28	4.60	-3.00**	163.96	5.74	165.20	5.31	-2.55*		
몸무게	62.58	6.07	63.09	5.11	-1.82	71.04	6.93	70.67	6.84	-1.04		

*p<.05, **p<.01, ***p<.001

<Table 8> 60대 여자의 체형별 계측치수와 이상치수 (단위 cm, kg)

부위	정상형 (n=29)				T 값	비만형 (n=50)				T값		
	계측치수		이상치수			계측치수		이상치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슴둘레	90.23	6.84	90.16	4.28	0.10	94.41	4.82	89.65	4.77	4.10***		
허리둘레	79.42	6.32	78.01	6.12	1.76	87.56	4.29	81.04	4.70	8.65***		
배둘레	90.65	8.19	88.08	7.79	1.79	96.63	5.12	87.84	4.93	9.71***		
엉덩이둘레	93.39	5.27	93.49	3.64	-0.13	96.44	5.12	93.33	3.78	5.47***		
대퇴둘레	50.00	3.62	50.90	2.70	-1.86	52.82	3.24	53.14	3.03	-0.25		
발목둘레	22.11	1.37	22.67	2.09	-1.99	23.64	1.52	23.59	1.50	0.39		
다리길이	95.98	3.93	97.56	3.17	-4.77***	92.59	3.99	95.42	3.79	-8.39***		
키	157.55	3.99	160.45	3.08	-4.37***	154.30	5.74	159.00	5.10	-8.44***		
몸무게	54.50	5.60	54.36	3.94	0.23	60.48	6.93	56.58	3.60	8.04***		

*p<.05, **p<.01, ***p<.001

우는 모든 부위에서 인식도와 만족도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는 굵고 무겁게 인식할 수록 불만이며, 대퇴둘레, 발목둘레는 굵게 인식할 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60대의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대퇴와 발목이 가늘어지는 체형의 변화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60대 여성의 가늘어진 대퇴둘레를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리길이는 길수록 키는 크다고 인식할 수록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와 계측치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 다리길이, 키, 몸무게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다리길이가 길고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

람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엉덩이둘레, 발목둘레가 가는 사람과 다리길이가 길고 키가 크고 몸무게가 작게 나가는 사람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의 몸무게에 대한 만족도는 인식도 보다는 계측치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60대 남녀노인의 신체 만족도는 실제 자신의 치수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 체형별 인식도와 만족도

본 연구의 60대 노인의 체형 분포는 정상체형이

47%, 비만체형이 53%로 비만체형이 많았다. 60대 남자의 경우 정상체형이 비만체형 보다 8%정도 많았으며 여자의 경우 비만체형이 정상체형에 비해 26%가 많아 체형적 차이를 보였다.

체형별 인식도는 남자의 경우 목굵기, 어깨너비, 허리둘레, 배둘레, 몸무게, 비만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비만체형이 정상체형에 비해 더 굵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며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목굵기,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다리길이, 키, 몸무게, 비만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체형별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60대 남자의 경우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비만정도에서 체형에 따라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비만체형보다 정상체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허리둘레, 배둘레, 다리길이, 키, 몸무게, 등굽은 정도, 비만정도에서 두 체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비만체형에 비해 정상체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60대 남자의 경우 인식도에서는 비만체형이 더 굵고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목굵기, 어깨너비, 대퇴둘레, 몸무게의 만족도에서는 체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체형의 형태가 신체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5. 체형별 계측치수와 이상치수

체형별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 정상체형은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키에서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비만체형은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키에서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상체형에 비해 비만체형의 계측치와 이상치수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체형별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상체형의 경우 다리길이, 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만형의 경우 대퇴둘레와 발목둘레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다리길이와 키는 계측치수 보다 이상치수가 더 길고 커으며 둘레는 모두 계측치수 보다 작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60대 여성의 경우 정상체형에 비해 비만형의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60대 남녀를 비교하면 정상체형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의 차이가 나는 부위가 많으며 비만형의 경우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차이나는 부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60대 남녀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60대 남녀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둘레는 더 굽게 인식하고 있으며 키는 작고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60대 남녀 모두 허리가 굽는 체형적 변화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60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배둘레가 가장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 60대 여자는 남자에 비해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신체 부위가 많았으며 이상치수와 계측치수의 차수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여성들은 키와 다리길이에서 계측치수와 이상치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60대 남녀 노인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계측치수 보다는 자신의 인식도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남녀는 둘레항목은 가늘게 인식 할수록 키와 다리길이는 길고 크게 인식할 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 대퇴둘레와 발목둘레는 굽게 인식할 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상체형과 비만체형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서는 60대 남자는 여자에 비해 체형이 신체의 만족도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남녀의 체형별 계측치수와 이상치수를 비교해 본 결과 정상체형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는 부위가 많았으며 비만체형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계측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차이가 나는 부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60대 남녀의 경우 노인의 특징적인 신체변화를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여자는 남자에 비해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대체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남자에 비해 이상치수와 계측치수간의 차수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의복 디자인이나 패턴설계에서 60대 여자의 신체적 결함

을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20대와 같이 비정상적인 마른 체형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굵어진 허리와 복부, 가늘어진 대퇴와 발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60대 노인 여성을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60대는 아직까지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연령대이므로 70대, 80대 노인과는 분리된 마케팅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후속으로 60대 남녀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 노인 중기, 노인 후기와는 차별화 된 의복디자인과 패턴 설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희숙. (2002). 의복설계를 위한 농촌지역 노년기 여성의 체형 및 기성복 만족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2), 169–175.
- 김인순, 성화경. (2002). 노년기 여성의 체형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 27–28.
- 김희영. (1998). 노년남성의 의복착용실태조사. *한국의류학회지*, 22(2), 192–202.
- 남윤자, 유희숙. (1996). 노인계층의 의복착용실태에 관한 연구I. *한국의류학회지*, 20(6), 962–974.
- 박재경, 이정임, 남윤자, 주소영. (2002). 노년 여성의 신체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령 및 비만도에 따른 신체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8), 1186–1195.
- 서미야, 이선희. (2002). 노년기 남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 및 치수적합도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6), 78–80.
- 이순명. (1993). 의복구성을 위한 노년기 남성의 체형연구 (I). *한양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16집.
- 이순명. (1996). 의복구성을 위한 노년기 남성의 체형연구 (II). *한양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19집.
- 이영주, 박옥련, 이정옥. (1997). 슬랙스 제작을 위한 20대 여성의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분석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368–382.
- 이영주. (2002). 남자 대학생들의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 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회지*, 11(1), 59–67.
- 정재은. (1993).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재은, 남윤자. (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 정혜원, 김구자. (2002). 노년여성의 내의 구매행동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5), 737–747.
- 조진숙, 박상희, 최정숙. (1997). 노인여성의 신체특징에 따른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5), 835–844.
- 함옥상. (1985). *한국노인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진숙. (2000). 노년층 남녀의 의복행동에 대한 신체이미지 와 자아존중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4(8), 1187–1196.
- Hoffman, A. (1970). *The daily needs and interests of older people*. Springfield II: Charles C. Thomas.
- Horn, M., & Gurel, L.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